

젝트의 전시는 식물과 인간의 관계를 밀도가 높고 흥미있게 구성하고 있다. 수준 높은 전시와 프로그램의 제공은 방문자들에게 새로운 방문객을 유도하는 원천이 되고 있다. 특히 식물과 인간을 매개하는 식재료, 주거 등을 전시함으로써 식물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뿐 아니라 흥미있는 체험을 하게 함으로써 재방문율을 높이고 있는 것은 국내 문화시설과 공간의 활성화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참고문헌

- 최수호, 정수영 임해진, 2009, Bio-Dome의 공간구성계획에 관한 기초적 연구 - 에덴 프로젝트 (Eden Project) 중심의 사례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11권 1호 통권 19호 2009년 5월, pp123-127.
- <http://www.eden-project.co.uk/map-edenhill/eden-map>
- <http://www.edenproject.com/>
- <https://www.visitcornwall.com/>



사진으로 보는 몽골의 자연

정옥식 _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익숙하지 않은 새소리에 눈을 뗀다. 시방은 빛 한줄 없이 어둡다. 지금이 몇 시인지, 여기가 어디인지, 대체 밖의 저 소리는 누가 내는 것인지, 피곤 탓인지 모두가 오리무중이다. 머리를 다듬어 핸드폰을 찾아 열어보니 벌써 7시가 넘었다. 핸드폰 불빛에 얻은 모습을 드러낸 실내는 밖의 새소리보다 더 낯설다. 게르다. 창이 없는 게르는 암실이다. 어제 일을 떠올려보니 밤자정 즈음 몽골에 도착했었고, 산발대와 함께 어둠 속을 달려 이곳에 도착했었다. 그리고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잠이 들었는데...



6월 14일 : 몽골의 첫 아침

그래 여긴 몽골이다! 그리고 저 새 소리는 분명 한국에는 없는 녀석이다! 서둘러 잠낭을 떠자니와 어두운 실 내를 더듬어 백열등을 켰다. 풀지도 않은 짚 속을 헤집어 쌓여있는 쌀안정을 찾아 밖으로 뛰쳐나갔다. 순간 세상이 온통 하얗다. 몇 초가 지나 시력을 회복한 후 일그러진 얼굴과 찡그린 눈으로 일단 소리의 주인을 찾았다. 멀리 한 무리의 까마귀 무리가 보였다. 붉은부라까마귀였다. 16년만에 만나는 녀석이다. 몽골의 첫 날 아침은 이렇게 (붉은부라까마귀로) 시작되었다. 정말 몽골의 하늘은 유난히 크고 빛도 강하다.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은 너무나 선명하다. 집에서 깨어 감각들이 하나둘씩 돌아오듯 탐사 첫날부터 조금씩 깨어나는 새로운 감각들을 느낄 수 있었다.



〈사진 2〉 숙소 전경(여행자를 위한 게르가 만들어져 있다. 실제로는 여행 편의를 위한 참나무 의자, 탁자만 배치되어 있다)



〈사진 3〉 붉은부라까마귀(우리나라의 까마귀보다 키가 작고 붉은색의 가슴과 아래로 흰 부리가 특징이다)

이번 몽골 탐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사라진 늑대를 비롯하여 눈표범, 한스온데 등 몽골의 야생동물과 온전하게 그들이 살아가는 곳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 뜻을 같이 하는 사람끼리 몽처 13명이 일행이 되었다. 운전자를 포함하여 몽역 등 총 4명의 몽골 현지인을 고용하여 탐원은 총 17명이었다. 비포장인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러시아 군용이자 사륜트랙인 '후르곤' 2대와 국산 중고 승합차 1대 등 총 3대를 임대하였다. 이틀전 먼저 몽골에 입국한 선발대가 식량과 김치, 물, 가스 등을 구입해둔 탓에 본대가 울란바타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현장으로 출발할 수 있었다. 탐사는 총 10일간 진행되었으며 고비사막을 중심으로 사람이 귀한 몽골에서 사람이 더 살지 않는 곳으로 총 2000여km 이상을 달렸다.

아침밥은 라면으로 급히 챙겨 먹고 오전 9시에 출발하였다. 목적지는 바르가츠린초르(지명/작은 비워산이란 뜻). 중간에 점심을 먹기 위해 식당에 정차한 것이외에는 계속 남하하였다. 그리고 15시 30분경 목적지에도착하였다. 보호구역 관리인이 기다리는 게르에서 주변 정황을 들었다. 관리인이 내어준 수태차양젓 혹은 우유 등에 찻잎을 넣고 끓인 후 암염으로 간을 한 차는 점심때 식당에서 먹은 것보다 훨씬 맛났기에 보은병 한 통을 다 비웠다. 최근에 조금씩 야생동물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초원수리, 독수리 등이 번식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곧바로 독수리 등지로 안내를 받아 옥추(새끼를 기를) 중인 독수리를 확인하였다. 돌아오는 길에 북방사막딱새 등지를 확인하고 몽골종다리 등 13종의 조류를 관찰하였다.



〈사진 1〉 몽골 첫날 숙소 위성사진(사진 중앙에 위치한 주황색이 사무실, 작게 줄지어 선 흰점들이 여행자를 위한 게르이다)



〈사진 4〉 변화된바위산(관악으로 불리다) 무너져 내리는 절경이 야생이다



〈사진 5〉 이동중에 들린 삭막(몽골 전통음식인 초야향 - 국물없이 고기와 묶은 쌀국수 - 을 먹었다)



〈사진 6〉 바카르산(관악으로 불리다) 전경



〈사진 7〉 관악인 계곡(이곳에서 2박을 하였다. 관악과 달리 실제 주인이 거주하는 곳으로 가축과 물을 파는 회소가 있다)



〈사진 8〉 계곡 내부 모습(관악의 연못으로 소들이 물을 마시고 풀을 뜯는다)

숙소(관악인 집)로 돌아와 보니 허락(몽골 전통음식으로 도리질 한양이나 염소 고기를 뜨겁게 달군 돌과 함께 용기에 넣어 익혀 먹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일행 중 도사가 고향인 분들은 염소집은 광경을 처음 보는

지라인산을 쓰면서도 신기한 듯 자리를 뜨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다. 전통 방식과 달리 조금은 변형되어 그냥 용기에 넣고 가열하여 고기를 익혔다. 고기는 늪은 염소를 요리한 탓에 조금은 질렸지만 모두가 한 손엔 칼, 한 손엔 커다란 갈바빠를 들고 입엔 가득 고기를 물로 흥겹게 저녁을 먹었다. 예전에 허락 요리를 먹었을 때는 잘 세척되지 않은 돌과 섞어서 요리한 탓에 고기가 흙과 돌의 잔해가 많아 제대로 씹을 수가 없었다. 변형된 허락은 흙이 없어서인지 그때 못다 먹은 뭉까지 배부르게 먹었다.

내일(15일) 주변을 자세히 둘러보기로 하고 이날은 관악인의 계곡에 묵기로 하였다. 차량이동과 더불어 도보 탐사로 지친 일행 모두 자라에 눕자마자 바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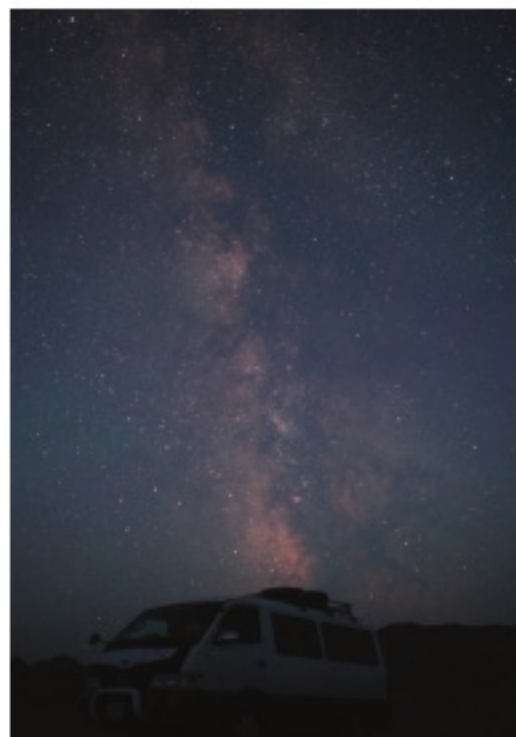
〈사진 9〉 염소 고기 손질 장면



〈사진 10〉 변형된 허락 요리(달군 돌과 고기를 함께 넣지 않고 외부에서 열을 가한 돌로 연못은 소들)

6월 15일 : 그날 새벽 은하수가 흘렀다

“정산생년 정산생년 일어나보세요” 잠잘에 갑은 계곡을 이용하는 김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예.. 선생님” 다른 일행이 깽깽바 작은 목소리 말씀하시는 탓에 덩달아 더 작은 목소리에 답하며 몸을 일으켰다. 머리맡을 더듬어 핸드폰을 열어보니 새벽 3시 30분이었다. “밖에 별이 떴습니다. 대단합니다. 나와 보세요”. 잠잘에 잠 깨다듯 감사하다 답하고 몇 걸음 걸어 문을 열어보니 문 밖에 별이 가득하였다. 마치 현실이 아니라 별 체험 부스에 들어온 듯하였다. 암실로 만든 돔 내부 백면 전체를 광섬유로 빈틈없이 채우고 별빛을 연출하고 있는 듯했다. 하늘에만 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땅 이외엔 온 세상이 별 천지였다. 내눈 망막 안의 시세포 하나하나 봄날 싹돋듯 긴 잠에서 깨어나 별 빛을 담아 내려 애쓰고 있는 듯했다. 한국에선 이 세포들은 별 볼일 없이 집만



〈사진 11〉 몽골 밤하늘의 은하수(몽골 탐사 기간 중 처음이자 마지막)

상한 새가 사는 곳을 둘러보는 것이다. 맨 먼저 초원수리의 둥지를 찾아 둥지 안에 웅크리고 앉은 새끼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남의 둥지를 이용한다는 한대원매의 최근 둥지를 찾아갔지만 비어있었다. 해서 작년에 이용했다는 둥지 2곳을 더 찾아갔지만 그 역시 비어있었다. 그 다음엔 '이상한 새가 산다는' 곳을 찾았다. 그곳에서 협곡 입구에 위치한 나무에서 독수리 둥지를 볼 수 있었다. 유럽의 독수리는 모두 나무에 둥지를 트는 반면 몽골의 독수리는 암벽에 둥지를 트는 지라 나무둥지는 몽골에서는 드문 경우이다. 순간 '데자뷰'를 느꼈다. 어디서 본 듯한 풍경이었다. 차근차근 기억을 더듬어보니 그 곳은 16년 전 들렀던 곳이었다. 독수리 이동경로 추적에 위치추적발산기를 들고 이곳을 찾았었다. 나무 둥지를 지나 협곡 안에서 착당한 둥지를 찾지 못해 옆의 협곡으로 이동한 기억이 났다.

이상한 새는 찾지 못했지만 관라인이 보여준 발자국을 보니 닭목에 속한 조류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일행 모두 뿔뿔이 흩어져 주변을 더 둘러보았다. 나는 일행 몇 명이 함께 협곡과 능선 주변을 다니다면서 아이택스산양

자고 있었으리라. 얼굴은 별빛에 쏘여 따금거리고 컷가엔 별 반짝이는 소리로 요란했다. 그런데 천재는 정말 막하다. 나는 우주에 있음을 깨닫고 지금 움직이는 건 뭐냐는 심장론 생애 처음 느껴보는 감각과 감정들의 조합이다. 어쨌든 실력으로 30여분 은하수를 담으려 사진기와 씨름하다 보니 새벽 4시 즈음, 밝아오는 동녘에 은하수가 배터리 다한 조명처럼 흐릿하게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이날 아침의 화두는 은하수였다. 다들 자기를 깨워 주지 않았다며 본 사람을 질책하고 또한 보지 못함에 안타까워했다. 목격담 보다는 은하수를 담은 증거 사진이 이들의 탄식을 더욱 깊게 했다. 사진의 질이 좋았다기 보다는 역시 '귀' 보다는 눈인 듯 했다. 몽골 탐사 기간 동안 또 하나의 버킷리스트가 추가되었다.

간단한 아침 식사와 설거지(물타슈로 초벌 세척)하고 휴지로 미물리를 마치고 관라인과 함께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하였다. 이날의 목적은 관라인이 파악하고 있는 여러 새들의 둥지와 자신이 처음 보았다는 '이

(siberian ibex)과 아르갈라산양(govi argal)의 배설물과 발자국을 확인했다. 조금 전에 모래목욕을 했던 자국과 털 문치를 보면서 이번 탐사에서 볼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더 커졌다. 나무독수리 등지협곡을 지나 열 계곡으로 향했다. 혹시 16년 전 올랐던 독수리 등지가 있는 계곡일까? 그리고 그 등지는 여전히 있을까? 몸은 차안에서 계속 흔들렸지만 눈은 앞서 가는 후르곤이 일으키는 흙먼지 너머의 풍경에 고정되어 있었다. 멈춰선 차에서 내려니 예상한 대로 그 곳이였다. 맞아, 독수리 새끼의 등에 발산기를 부착하느라 쫓겨있던 내가 저 등지 안에 있었었지.. 이 넓은 몽골에서 내가 이곳을 다시 올 줄이야! 어른 2-3명이 들어가도 공간이 남는 큰 등지 안에서 예전의 그 녀석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여전히 어미가 새끼를 돌보고 있었다. 모두가 그대로였다. 등지도 그대로였고 등지가 놓인 바위산도 하늘도 예전 그대로였다. 타임머신을 타고 온 듯 했다. 모두가 그대로인데 나만 변해 있었다.

이날 대형 까마귀종류 중 하나인 레이븐(raven)을 비롯하여 총 16종의 조류를 관찰할 수 있었다.



〈사진 13〉 안내 중인 관라인



〈사진 14〉 16년 전 올랐던 등지 왼쪽 암벽의 흰색 자국이 난 곳이 독수리 둥지이다



〈사진 12〉 초원수리 등지안의 새끼

6월 16일 : 남으로 달리고 또 달린다

이날 몽골 남단 고비지역을 지나는 고르판사양 산맥 내에 위치한 국립공원을 향해 출발하였다. 관라인과 작별하고 09시경 출발한 우리는 만달고비의 도창 소재지에 들러 잠시 화장실과 주유소를 들른 후 다시 남진을 계속하였다. 바키르르르르를 벗어나자 들판이 보이기 시작했지만 만달고비를 지나자 사야가 닿는 곳까지 밭고래로 끝 없는 초지대가 보였다. 창 밖을 계속보고 있으면 바다 위를 달라는 듯한 착각이 들게 하였다. 처음엔 끝없는 바다가 신기했지만 달리고 달려도 아무리 멀리 봐도 육지는 보이지 않고 하다 보니 나중엔 언제쯤 육지에 닿을까 하는 지루함마저 느껴졌다. 긴 이동을 지루한 탓에 운전기와 동역원인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거리 감각 퀴즈풀어도 했다. 자기 지평선까지 거리는 얼마나, 자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 등등의 퀴즈에 정답은 30km, 80km 어떤 경우엔 100km도 있었다. 100km 거리까지 볼 수 있도록 장애물이 없고 또 한 공기가 맑다는 게 신기한 따름이었다. 12시경 식당을 들러 염소탕과 감발갈기 두 반찬을 기름에 튀긴 전과 같은 음식으로 점심을 먹고 남진을 계속하였다. 지루함은 16시 즈음부터 육지가 보이기 시작하자 조금 누그러지기 시작했다. 다들 자드 부근에 가까워질수록 멀리 고르판사양 산맥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17시 30분 경 고르판사양 국립공원이 위치한 다들 자드 부근에 도착하였다. 몽골 수도인 울란바타르에서 약 직선거리로 520여km 남쪽에 위치한 도창 소재지이다. 속초 어디에서든 설악산이 보이듯 이곳에서는 고르판사양 산맥이 배경으로 펼쳐져 있었다. 대형 슈퍼마켓에 들러 식수를 비롯하여 식재료를 구입하고 오전에 기름을 가득 채운 차량에 또한 기름 주유를 마쳤다. 후르곤의 연비는 리터당 5km 남짓으로 정말 기름 먹는 하마답게 오늘 상당한 기름을 먹었다. 몽골에서 정유 1리터의 가격은 1500투르크(몽골 화폐 단위로 100투르크는 우리 돈으로 60원이 조금 안 된다)로 과거 2000년 방문 당시의 300투르크와 비교하면 5배 인상된 가격이라 주유기의 눈금이 오를 때마다 부담의 눈금도 함께 올랐다. 물론 많은 세월이 지나긴 했지만 많이 오른 물가에 흠칫 놀라는 경우가 많았다. 식당의 밥 값이 그렇고, 또한 어제 먹은 허벅도 그렇다. 예전엔 허벅을 2만투르크에 먹었는데 이제는 20만투르크를 지불했었다. 예전엔 농담삼아 잡아먹고 하던 소한마리의 가격도 6~7만투르크 하던 것이 지금은 50~60만투르크 이상 한다.

팀원들이 장을 보는 사이 주변에서 국내에서는 거의 보기 힘든 염주비둘기와 집비둘기의 조상인 rock dove 그리고 집참새 무리를 보았다. 새로 사들인 물과 식량을 다시 차에 싣고 2시간여를 더 달려 19시 30분 국립공원 초입에 도착하였다. 국립공원의 경우 외국인의 경우 하루 3000투르크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문 밖에서 야영하기로 했다. 남녀 화장실(몸을 가릴 만한 비위)이 위치하고 비람을 피할 수 있는 지형을 갖춘 곳을 찾아 집을 풀었다. 아침 출발부터 도착까지 10시간 이상이 걸리는 장거리 이동이었지만 내일이면 몽골의 진정한 생일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에 피곤함을 느끼지 못했다. 우리나라보다 16배 이상 넓은 국토를 지닌 것에 비해 인구는 고작 300만(2015년 1월에 돌파) 밖에 되지 않아 몽골은 어쩌면 사람 보기가 귀한 곳이라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고르판사양 산맥과 우랄산맥은 인구밀도가 미미하여 사람에 의한 훼손이 적은 지역이다. 따라서 서식지가 잘 보전되어 있어 다양한 야생동물을 볼 수 있는 곳이다. 무엇보다 은둔의 카르마를 지닌 눈코를 만날 수 있는 곳이다. 고르판사양에 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었다.



〈사진 15〉 고르판사양 입구에서 야경

6월 17일 : 드디어 그곳이다

이날도 아침은 낮선 소리로 시작하였다. 새벽 잠잠에 얹은 천 하나를 두고 낮선 소리와 내 귀가 마주하였다. '새소리인 듯 하고, 아님 다람쥐처럼 작은 설치류가 내는 소리인 듯 하고... 뭘까? 앞에 누운 아들 녀석이 깽깽 바나나보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다 텐트 바로 문 앞에서 까지 소리가 들리자 텐트 문을 천천히, 소리를 최대한 줄이면서 열어봤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문을 연 김에 쌍안경을 쥘겨 나왔다. 하늘을 봐도 나는 새는 없었다. 저 멀리서 그 소리가 났다. 하늘이 아니라 땅에서 나는 소리였다. 쌍안경으로 움직이는 뿔개를 보니, 우는뿔개(생트끼)였다. 쌍안경으로 눈을 떼지 않고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 텐트 속에서 들었던 소리를 낸다. 이렇게 우는 구나? 40년 이상을 품은 궁금중이 풀린 순간이었다. 그리고 사진으로만 보던 녀석을 이렇게 만나니 반갑기도

하고 신기할 따름이었다. 사진 혹은 영상 매체로만 보던 유명한 스타를 직접 앞에서 만나면 이런 느낌일까? 화장실을 다녀온 뒤 주변을 둘러보니 텐트들이 자리한 주변으로 녀석들이 파놓은 굴들이 널려있었다. 그리고 마치 두더지 집기 놀이를 하듯 여기저기서 얼굴을 내밀었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텐트가 위치한 언덕 주변으로 족히 20마리 이상이 살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생토끼마을 안에 우리가 무단으로 텐트를 친 셈이다. 생토끼 입장에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보도 못한 커다란 물체가 문 앞에 놓여 있었으니 놀라고 당황했을 것이다. 해서 놀란 마음에 낸 경계음이 새벽에 텐트를 뚫고 들어온 듯했다. 이렇게 흔한 녀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내에서 봐오던 녀석의 사진은 모교수님께서 백두산에서 찍으셨다는 단 한 장의 사진이 유일하다. 때문에 동물을 연구하거나 관찰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엔 암석 지대에 주저리고 앉아 오른쪽을 상단을 주시하고 있는 동일한 이미지의 우느토끼로 존재하고 있다.

이날은 국립공원 내부로 들어가서 울란함 지역을 보기로 했다. 입장료를 내고 공원 입구에 위치한 자연사박물관을 잠시 관람 후 계곡안쪽으로 20km를 더 이동하여 산 아래에 정착했다. 각자 장비를 비롯하여 물, 주먹밥, 초콜렛 등을 챙기고 본격적인 산행을 시작했다. 호객행위를 하듯 우리 주변을 에워싼 스노우핀치(snow pinch)와 참시 홍정(?)을 하고 난 후 울란함 계곡 깊이 들어갔다. 도중에 한 마리의 새를 떨어지게 보고 있는 20여명의 일본팀을 만나 뵈고 있느냐 물으니 rosy finch(양전지 종류)를 보고 있다고 했다. rosy finch 종류만 15종이 넘는데 구체적으로 무슨종이냐고 물으니 그냥 rosy finch란다. 답답한 맘에 망원경을 잠시 빌려줄 수 있냐고 물으려는 순간 날아가 버렸다. 이동을 하며 험곡 사이로 드러난 파란 하늘 위를 나는 하말라이독수리(giffon vulture), 수염수리, 독수리를 단체로 관찰하고 붉은부리까마귀, 생전 처음 목격하는 wall creeper(둥고비 종류), oag martin(갈색제비 종류)를 보았다. 험곡 깊이 들어갈수록 폭은 좁아지고 암벽은 더욱 가팔라지고 정사는 직각에 가까웠다. 웅덩진 곳에 두꺼운 얼음이 남아있었고 험곡의 갈래기 끝에 다다라서는 얼음으로 길이 막힌 탓에 되돌아 나오게 되었다. 험곡의 초입으로 나와서 양지비른 곳에 모여 앉아 주먹밥으로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두 팀으로 나뉘고 울란함의 주능선과 오천에 둘러본 얼음 계곡의 열 골짜기를 둘러보기로 했다.

오후 5시에 차를 두고 온 곳에서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 좋은 거(화귀 동새들) 보는 행운이 없기를 서로에게 당부했다. 나는 수염수리의 등지를 우선 보고 싶어 골짜기를 택했다. 얼음계곡 보다 폭이 넓은 골짜기는 안으로 들수록 넓어졌고 완만한 정사로 산맥의 주능선까지 이어져 있었다. 길을 오르면서 초자대와 암석 지대에 서식하는 다양한 새들과 함께 캥거루쥐, 우느토끼 등을 보았다. 진흙을 이용해 등지를 열심히 짓고 있는 oag martin을 잠시 관찰하기도 하고 다양한 꽃들과 보았다. 쌓안정으로 암벽 사이를 훑어보고 능선의 꼭대기를 연신 관찰하였지만 수염수리의 등지도 산양의 모습도 볼 수 없었다. 대신 다양한 새들을 볼 수 있어 어느 정도만 족할 수 있었다.

이날 조류는 20여종을 관찰하였고 그중 5종은 태어나서 처음 본 새들이라 만족스러웠다. 다만 주능선을 오를 때마다 아이벡스산양 무리를 직접 보았고 또한 먼저 약속장소에 도착하여 1시간 이상 승미도 즐겼다고 해서 배가 조금은 아팠다.



우느토끼(생토끼)



고르빈산으로 들어간다



6월이지만 아직 얼음이 있다



햇살아래서 점심



많은 모닥불은 날씨 탓에 저어는 늘 불을 피우기 했다. 여기에 구운 감자 맛은 일품



주능선을 오르는 팀

6월 18일: 드디어 물을 만나다. 근데 슬프다

이날의 주 계획은 고르칸산양의 동그네 지역을 둘러보고 협곡을 빠져나와 곧바로 홍그르넬스로 이동하기로 했다. 동그네지역은 씻을수 있는 물이 있다고 하니 시간이나면 중간에 먹을감기로 했다. 05시에 기상하여 주변을 둘러본 후 아침 먹고, 텐트를 걷고 09시가 조금 넘어 출발하였다. 이날 아침 나는 진드기로 인해 밤이 편치 않았다. 얼굴과 목을 기어오르는 3마리의 진드기를 잡았다. 그러다 결국 머리 두피에 박혀 피를 빨고 있던 2마리를 뜯어내었다. 아직도 머리가 많이 가렵다. 이동중 차 안에서 일행의 어깨를 오르는 진드기도 잡아주었다.

동그네로 가는 길은 승합차를 견인을 해야 할 만큼 가파르고 요철이 많아 힘들었다. 험한 곳인 만큼 큰길뚱거리, 짐독수리, 초원수리, 핸드손베, 수염수리 등 다양한 맹금류를 볼 수 있었고 다 자란 새끼가 놓인 큰길뚱거리 등지를 여럿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전날 보지 못한 아이벡스산양을 볼 수 있었다. 처음엔 맞은편 비워산의 능선을 오르는 4마리를 목격했고 곧이어 수컷을 포함한 또다른 여섯 마리의 무리를 볼 수 있었다. 어제 산양을 본 이들도 수컷은 보지 못했기에 모두들 목연의 합성을 질렀다. 커다란 뿔을 지닌 건장한 수컷을 보니 정말 감사하고 감사했고 그리고 감동했다. 2000년 중반 몽골지역의 폭설로 인해 많은 수의 산양이 아사했고 절멸할 지도 모른다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컸었다. 그래서 더 감사했다.

우리가 기대하던 큰물은 어디에도 없었다. 유래같이 맑은 물도 없었다. 우리 발길로 종종 흐르던 흙탕물이 그 물이었다. 바이르후(몽역을 담당하는 몽골 현지인)가 말한 '씻을수 있는 물이 있다는 말에 왜 우리에게 '급' 폭포수로 들렸을까? 손을 씻기에도 꺼림칙한 물빛이었지만 거의 일주일간 씻지도 못한 탓에 처음엔 손발만 씻다가 머리로 감았다. 씻고 나니 물빛이 준 첫 인상은 다르게 물이 주는 개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다들 서로에게서 비누 냄새와 샴푸 냄새가 난다며 신기해했다. 암막이 만들어 준 그늘에서 점심을 먹고 처음으로 진짜 설거지를 하고 14시경에 다시 차에 올랐다. 차한 대만 겨우 지날수 있는 좁은 틈을 빠져나오니 지형은 부채처럼 넓게 펼쳐졌고 200여미터에 달하는 양과 염소 무리가 막 물가에 도착한 듯 물을 먹고 있었다. 그리고 말을 탄 열 살 남짓한 두명의 아이가 이들을 몰고 있었다. 물가에 도착한 말이 물을 마시는 순간 아이는 말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같이 물을 마신다. 일행은 많은 생각들로 한동안 말을 못했다. 다들 미안함과 부끄러움, 감사함의 일차적 감정으로 시작하여 행복, 살 등 철학 모드로 생각이 옮겨갔으리라 짐작되었다. 아이들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작은 선물을 진심으로 건네주고 다시 길을 떠났다.

20시경 목적지인 홍그르넬스에 도착하였다. 모래언덕이 발달한 곳이라 모래바람이 심했다. 마치 텐트를 가지고 바람과 줄다리기를 하는 듯 했다. 바람에게 지지 않으려 텐트를 세게 옮겨진 탓에 손목이 아픈 정도였다. 혼이 잠시 나갔다 돌아와 보니 텐트는 대충 자리를 잡고 있었다. 하지만 텐트 입구가 모래바람과 정면으로 대치

하고 있어 들고 나기 위해 문을 열 때 마다 틈새로 모래가 한 바가지씩 들어왔다. 다시 고쳐 칠 엄두가 나질 않아 모래와 함께 잠들었다.



큰길뚱거리 동지안의 새끼



아이벡스산양무리
(큰뿔을 가진 녀석이 수컷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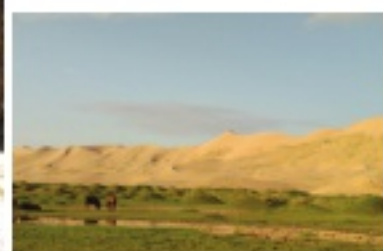
동그네지역 끝자락에 위치한 협곡



말과 함께 물을 먹는 목동



조심스럽게 선물을 건네다



홍그르넬스의 오아시스



홍그르넬스의 오아시스

